

후지쯔, 복수 유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트랜시버' 기술 개발

후지쯔와 후지쯔 연구소는 휴대전화망이나 무선 LAN을 이용해 복수의 상대와 동시에 음성 통화할 수 있는 패킷 통신 기술 '유비쿼터스트랜시버'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휴대전화망이나 무선 LAN등을 이용해 IP망으로 트랜시버와 같은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PoC/W(Push-to-talk over Cellular/Wireless)로 불러 다른 지역에 있는 복수의 유저 사이로 패킷 통신에 의한 음성 통화가 가능하다.

후지쯔에서는 패킷 통신에 의한 음성 통화가 늦는 점 등을 고려해 음성 품질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음성 데이터 처리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유비쿼터스트랜시버' 기술은 멤버 상태 관리나 멤버 사이에서의 말하는 사람의 관리, 통지 등 PoC/W서비스의 프로토콜에 SIP/SIMPLE를 채용한다. 음성 데이터는 압축해 전송되어 응답 성능을 높이고 있다.

동사에서는 이번 기술을 우선 법인전용 기기에 적용해 업무 솔루션이나 컨슈머(consumer)전용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향후 휴대전화의 서포트도 검토하여 올해 안에 제품화할 예정이다.

■ URL : <http://pr.fujitsu.com/jp/news/2004/06/29-2.html>

일 경찰청, 청소년의 비행과 휴대전화에 관한 조사 연구 결과 발표

일본 경찰청은 '청소년의 의식·행동과 휴대전화에 관한 조사 연구'라는 제목의 조사를 실시, 휴대전화가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총 4,382명이며, 그 중 중학생이 2,434명, 고교생이 1,948명이다.

일반 청소년은 미야기, 치바, 이시카와, 오사카, 오카야마 등에서, 비행 청소년은 기간 중에 전국에서 검거·보도된 청소년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 조사기간은 일반 청소년은 2002년 9월에서 12월까지, 비행 청소년은 2002년 10월에서 12월까지이다.

발표된 리포트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이용 상황에 대해 중학생에 대해서는 비행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 휴대전화 소지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교생에 대해서는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채팅 사이트의 이용 상황에 대해서는, 비행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 채팅 사이트를 이용했던 적이 많으며, 그곳에서 알게 된 사람과 실제로 만나는 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교생은 이용하지 않는 고교생과 비교해 휴대전화의 이용요금이 높고, 그 일을 이유로 보호자에게 혼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 많다고 리포트는 밝히고 있다.

휴대전화의 문제점이라고 제목을 붙인 항목에서는, "휴대전화 없으면 초조하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동료와의 대화가 잘 되지 않다" 등의 설문에 비행 청소년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높은 일을 지적하며, 비행 청소년의 휴대전화에의 의존도가 높음을 지적했다.

또 휴대전화의 악용에 관한 항목에서는 “끈질기게 불러 나갔던 적이 있다” “메일로 장난을 했던 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비행 청소년에게 높게 나와, 폭력 감정이나 일탈 행동, 공중의 장소에서의 매너 위반 등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소지군이 비소지군과 비교해 높다고 밝혔다.

■ URL 조사 연구 보고서 : <http://www.npa.go.jp/safetylife/syonen16/keitaityouusa.pdf>

NTT도코모, 소형 i모드 휴대전화 'premini' 등 발매

NTT도코모는 소형 바디에 심플한 기능을 추구한 소니·에릭슨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i모드 단말 'premini'를 7월1일에 발매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종래보다 소형인 바디와 심플한 기능을 컨셉으로 한 i모드 단말로, 지난 5월에 개최된 '비즈니스 쇼 TOKYO 2004'에 발표되어 기존 i모드 단말과는 다른 외관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제품은 또한 작은 몸체에도 누르기 쉽게 계단상의 디자인이 된 버튼 '슬로프 키'가 채용된 것 외에도 메일 등의 문자 입력시에 예측 변환 등이 가능한 'POBox'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디스플레이

이는 1.3인치, 160×128화소, 65,536색 표시가 가능한 TFT액정으로,

10~16화소와 4종류의 문자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다.

크기는 약 90×40×19.8mm이며, 무게는 약 69g이다. 연속 대기 시간은 약 310시간이며, 연속 통화 시간은 약110분이다.

바디 칼라는 Black과 Silver 2색이 발매된다.

NTT도코모는 또 FeliCa대응의 단말기 4모델도 발표했다.

이 제품은 소니가 개발한 비접촉 IC기술 방식

'FeliCa'를 탑재한 i모드 단말

로, 단말기만 가지고 개찰을 통과할 수

있는 JR동일본의 'Suica'카드나, 전자 화폐 'Edy'

등, 비접촉 IC를 사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휴대전화에 포함시

키는 것이 가능하다. 서비스 개시에 맞추어 발매되는 모델은 후지쯔의 'F900iC',

파나소닉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의 '무바 P506iC', 샤프의 '무바 SH506iC', 소니·에릭슨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의 '무바 SO506iC' 등 4개 모델이다.

■ premini URL 정보 : <http://www.sonyericsson.co.jp/product/docomo/premini/top.html>

■ FeliCa탑재모드 단말 URL : <http://www.nttdocomo.co.jp/new/contents/04/whatnew0616.html>



세계 휴대전화 판매, 올해 6억대 돌파 전망

가트너 제팬은 2004년 1/4분기 세계 휴대전화 판매 대수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사의 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는 1/4분기로는 처음으로 1억5,000만대를 돌파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호조 추세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메이커별로 선두가 된 것은 쉐어 28.9%를 차지한 노키아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 대수가 약 5백만대 증가하고 있지만, 쉐어 자체는 5.7포인트 감소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가트너 제팬은 "단말기 바리에이션이 적은 것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위를 차지한 것은 전 분기와 같이 쉐어 16.4%의 모토로라이며, 이쪽은 쉐어가 1.7포인트 증가했다.

3위는 쉐어 12.5%의 삼성이며, 동 조사에서는 호조의 요인으로서 "저가격대의 단말 시장에서의 참가가 성공한 것" 등을 들고 있다. 계속되는 4위는 쉐어 8.0%의 지멘스, 5위는 5.6%의 소니·에릭슨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차지했다. 덧붙여 일본 메이커로는 NEC가 7위, 파나소닉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8위, 교세라가 9위를 차지했다.

가트너 제팬은 향후 동향으로, "서구에서 금년 하반기에 3G단말의 수요가 느는 것 외에 올 해 전체 판매 대수가 6억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 URL : <http://www.gartner.co.jp/press/pr20040609-01.pdf>

미 ABI리서치, AV가전 네트워크 상위 2009년까지

미국의 ABI리서치는 지난 29일(미국 시간) AV가전의 네트워크 기술에서는, 'Wi-Fi(IEEE802.11x)'가 향후 5년간 계속 리드해 주류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하는 전망을 발표했다. 또 동사는 실효 속도 100Mbps에 이르는 규격의 등장으로 인하여 고속의 'UWB(울트라 와이드 밴드)'나 취급하기 쉬운 전력선 네트워크를 역제한다고 밝히는 한편 Wi-Fi, UWB, 전력선 네트워크의 3가지 기술 가운데 고속성 등에서 실질적으로 Wi-Fi, UWB의 양기 술이 가전 네트워크 분야에서 싸우게 된다고 보고 있다.

UWB는 이론치로 480Mbps를 실현하는 차세대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내년엔 칩 세트의 제조 개시, 2006년이나 2007년 적령기에 제품 출하가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의 공칭 통신 속도는 100~200Mbps에 머물러, 통신 오버헤드를 고려하면 실효 속도는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Wi-Fi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802.11a', '802.11g'는 최대 전송 속도가 54Mbps로, 한층 더 통신 오버헤드에 의해 실효 throughput는 그 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ABI리서치에 의하면, 다음에 등장하는 Wi-Fi 규격 '802.11n'(05적령기에 책정)은 실효 throughput로 100Mbps를 달성해, 고품위 비디오의 복수 스트리밍 전달 등도 가능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 ABI리서치 URL : <http://www.abiresearch.com/>

싱가폴 휴대전화 메일 빨리치기 대회 개최

싱가폴에서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휴대전화 메일 빨리 치기 콘테스트가 열려 23세의 여성이 160자의 영문을 43.24초에 입력해 우승했다.

대회 주최자인 싱텔은 기네스 북에 의하면 종래의 최단 기록은 67초로, 이 기록은 새로운 기록으로 인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승자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인 킴벌리 요씨로, 이 날 과제 메일은 'Therazor-toothed piranhas of the genera Serrasalmus and Pygocentrus are the most ferocious freshwater fish in the world. In reality they seldom attack a human.'였다.

종래의 기록 보유자는 영국 남성으로, 지난해 9월에 같은 문장으로 기록을 달성했다. 물론 입력 지원 기능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콘테스트는, 싱가포르의 오테도리신 회사인 싱텔이 개업 125주년을 기념해 개최했다. 대회는 변화가의 쇼핑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참가자는 125명이었다. 요씨는 8회 도전했으며, 이 중 4회가 44초가 채 안되었다. 요씨는 "1달에 평균 1500통의 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단련할 수 있었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회 상품으로는 현금 1만7500싱가폴·달러(한화 약 1천만원)와 최신식 휴대전화 등이다. 준우승은 18살의 남자 전문대생으로, 기록은 43.66초였다.

■ URL : <http://home.singtel.co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ARM, 휴대전화 시큐리티 제휴

Texas Instruments와 ARM 양사는 휴대 전화를 타겟으로 한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출현함에 따라 휴대전화의 시큐리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용 칩의 공급, 설계 각각의 분야의 유력 기업인 양사는 현재 "시큐리티 기능을 하드웨어에 장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ARM의 세그먼트(segment) 마케팅 디렉터 Dave Steer는 지난 29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휴대전화의 시큐리티는 통상 가입자의 신원 정보나 전화기 고유의 ID번호를 소프트웨어로 암호화하는 것이었으나, 휴대전화 기술에 정통한 해커가 이러한 시큐리티 대책 기술을 시큐리티 홀로 바꾸어 버리는 케이스가 많아졌다.

ID번호는 휴대전화전용 서비스의 방범 게이트로서 이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훔친 휴대전화의 ID번호를 변경해 선불 요금을 폴로 요금해 전매하는 등 휴대전화에 대한 해킹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TI의 관계자는 "하드웨어에 의한 어프로치라면 해커는 칩을 다시 프로그래밍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킹 행위가 암호의 해독보다 훨씬 곤란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양사는 약 2주일 전에 사상 최초의 휴대전화 바이러스 Cabir가 출현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번 발표를 실시했다. 이 바이러스는 Symbian operating system이 동작하는 스마트 폰의 Bluetooth 접속 기능을 사용해 Symbian이 탑재된 다른 휴대전화를 감지, 자기 자신을 패키지 파일로서 새로운 단말에 카피한다.

"Cabir는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았다. 신원 불명의 송신원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타겟으로 된 휴대전화 유저가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등장해 오는 휴대전화 바이러스는 좀 더 공격적으로 되어 갈 것이다"라고 Steer는 밝혔다.

■ URL : <http://news.com.com/2100-7355-5252194.html>